'방자전'

사극 안방 찍고 스크린으로

■충무로 '사극 영화' 열풍

'구르믈…' 차승원·황정민 화려한 캐스팅

'방자전' 방자-춘향-이몽룡 삼각관계

'현의 노래' 전국 유명 풍광 3D로 담아내

최근 막을 내린 사극 '추노'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화면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충무로에도 사극 바람이 불고 있다. '구르믈 버서난 달이'가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 '방자전' 역시 크랭크 업 후 후반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의 노래'와 '혈투'는 캐스팅을 마친 후 한창 촬영중이다.

'구르믈 버서난 달이'는 충무로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 '왕의 남자'로 1천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데다 황정민 등 화려한 캐스팅이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선조 29년 일어났던 이몽학의 난을 모티브로 한 액션 활극인 '구르믈 버서난 달이'는 박흥용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왕족의 서얼 출신으로 세상의 혁명을 꿈꾸는 대동계 수장 이몽학 역은 사극 '혈의 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차승원이 맡았으며 '너는 내 운명' 등을 통해 연기 내공을 보여준 황정민이 이몽학과 대립관계에 놓이는 전설적인 맹인 검객 황정학 역을 맡았다. 여기에 이몽학을 사랑하는 기생 백지 역을 맡은 한지혜와 아버지를 죽인 이몽학에게 복수하기 위해 황정학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견자 역의 백성현이 호흡을 맞춘다.

영화 '방자전'은 '춘향전'의 주인공이 이몽룡과 춘향이가 아닌, 방자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멜로물이다. '스캔들-조선남녀 상열지사'의 각본과 '음란서생'의 연출을 맡은 김대우 감독 작품으로 김주혁이 타이틀롤을 맡았다.

이몽룡역으로는 류승범이 출연하며 미모를 무기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전략가로 묘사될 춘향 역에 조여정이, 고전에서의 충성심 강하고 어리숙한 춘향이의 몸종 향단이에서 벗어나 방자와 춘향, 이몽룡 간의 삼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향단 역에 류현경이 캐스팅 됐다.

'동승'의 주경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현의 노래'는 3D로 제작되는 사극이다.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현의 노래'는 신라시대 악성 우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현의 노래'는 순천만 갈대밭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전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3D로 담아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주인공 우륵역은 이성재가 맡았으며 안성기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영화 '과속 스캔들'의 아역배우 왕석현도 출연한다. .

현재 주요 배역의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촬영을 앞두고 있는 작품은 영화 '혈투'로 '추격자' '작전'을 제작한 영화사 비단길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혈투'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와 그 양반가에서 더부살이로 자란 남자가 청나라군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면서 드러나는 음모와 배신을 담는다. 이 작품 역시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세븐 데이스' 등을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박희순은 문무를 겸비하며 모든 부분에서 출중하지만 양반가에서 더부살이로 자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남자를, 영화 '마더'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 진구는 몰락한 양반가의 걱정 없는 한량을 맡았다. 장훈 감독의 '영화는 영화다'와 '의형제'에서 라이 따이한 출신 베트남 조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고창석이 낙오병역으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의 노래'

'구르믈 버서난 달이'

새 영화 집 나온 남자들

아내찾아 나선 세남자
좌충우돌 로드 무비
지진희 연기변신 볼 만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남편과 그 일행의 좌충우돌 로드 무비다.

아내가 편지 한 통 써놓고 집을 나가자 음악평론가 성희는 10년째 데뷔를 준비중인 감독 지망생 친구 동민을 데리고 아내를 찾아나선다.

성희와 동민은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 그녀의 행보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지만 아내의 측근들을 만날 수록 도대체 왜? 어디로? 갔는지는 물론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차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든다. 거기다가 아내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유곽(이문식)의 등장으로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간다.

매력적인 배우들이 눈길을 끈다. 댄디한 배역을 주로 맡았던 지진희가 제 잘난 맛에 사는 재수 없는 성희 역으로 출연하며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옴므 파탈'역을 맡은 이문식의 변신도 흥미롭다.

지난해 수많은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화제가 됐던 영화 '똥파리'에서 감독과 배우로 출연했던 양익준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소리와 지진희가 주연을 맡았던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의 메가폰을 잡은 이하 감독의 두번째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